국민의식의 일대전환 필요하다!

대구지하철에서 2월18일 일어난 방화참사로 200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이 지옥 같은 세상을 등지고 하늘나라로 떠나간 모양이다. 원래는 133명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1080호 기관차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무더기로 늘어나고 있다.

대구지하철 참사는 화재 당시 종합사령실이 화재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고, 화재사실 보고에도 우왕좌왕했으며, 해당 기관사들은 화재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 결론이다. 화재가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오작동으로 인식하는가 하면, 해당 기관사는 사고발생 직후 종적을 감추고 11시간 동안 지하절 간부들과 사건조작에 혈안이 돼 있었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뿐이다. 사고수습 자체도 체계적이지 못해 사고발생 5-6일 후에야 사망자가 200명 가까이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고도 나온 말이 불연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지 않아 사고가 커졌으며, 사고가 발생해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것이 고작이다. 아마도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덮어졌다면 지하철 내장재를 바꾸고 안전인력을 보강하는 선에서 사건이 수습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사고를 키웠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초기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뿐이었을까? 참사가 발생한 지 5-6일 동안 언론보도나 전문가들의 지적내용을 보노라면 2가지 원인보다는 국민의식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국가 전체가 총체적으로 썩고 잘못돼 있다는 판단이 앞선다.

지하철 사령실 및 역무실 관계자나 기관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근무수칙을 철저히 지켰다면 사망자를 10명 이내로 최소화할 수 있었고, 지하철 내장재를 원래 규격대로 시공했다면 부족하지만 200명 가까운 인명을 앗아가는 참사로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구지하철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근무태만에 정신상태가 해이해져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고 있고, 대구지하철 전동차 내장재는 시공하기 이전 실시한 검사 및 시험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제작과 납품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2-3분만에 화마에 휩싸인 대구지하철 전동차의 내장판 등 마감재료에 대한 각종 검사 및 시험에서 불연성 또는 합격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내장재료에 대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와 실내설비 사양서 등을 바탕으로 전동차 제작과정과 납품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겠다고 하니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대구지하철이 개통된 1997년 11월26일부터 2년전인 1995년 1-5월 철도차량 전문검정기업인 철도차량기술검정단과 한국화학시험연구소 등에 의뢰해 1호선 전동차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 결과, 내장판은 성능검사의 난연성 항목에서 불연성 판정을 받는 등 인장강도와 열팽창률을 비롯한 모든 항목의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또 단열재로 사용된 폴리우레탄 역시 물성시험 결과 난연성 항목에서 ` 이상없음 판정을 받았고, 바닥재로 사용된 리노륨도 내연소성 항목에서 판정기준(난연성)보다 더 높은 불연성 판정을, 의자커버(Polyester 모켓)와 쿠션재(우레탄폼)는 합격판정을, 통로연결막(졸타파린)은 난연성 판정을 각각 받았다고 한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차량의 천장은 섬유강화플래스틱(FRP),바닥은 PVC바닥재, 의자는 폴리우레탄폼 등으로 제작돼 화재가 발생하면 고열과 함께 유독가스를 내뿜는 등 질식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합격판정을 받은 규격제품을 사용했다면 대형 참사로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대구지하철 관계자들이 납품업자들과 짜고 규격제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화학기업들이 지하철 관계자

들을 속이고 규격외 제품을 납품했다는 것으로 결론나는데 전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짐작이 간다.

전동차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자 · 천장 · 바닥재 등을 불연재로 교체할 필요는 있으나 대형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론적으로, 국민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할 일이나, 오늘날에는 젊으나 늙으나 사회에 감사하고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공헌하겠다는 의식을 가진 인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날이 새는 줄 모르는 노동분쟁에는 일할 수 있는데 대한 감사의 뜻이 있을 수 없고, 공무원 사회와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는 국가사회의 기초를 흔드는 사회악으로 자리잡고 있다.

<화학저널 2003/3/3>